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이상호

건국대학교 강사, 한국현대사 전공
kennan2@hanmail.net

박성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정치사 전공
parksj@aks.ac.kr

- I. 머리말
- II.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 III. 팔미도 정보 작전[트루디 잭슨(Trudy Jackson) 작전]
- IV. 누구의 활약인가?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전쟁은 1950년 전쟁 발발 시점부터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는 했지만, 국제전으로서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계기는 개전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1950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과 복진, 그리고 10월 중공군의 참전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개전 후 낙동강 전선에서 수세적인 전황으로 교착되었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 중공군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쟁의 양상 또한 전면적으로 뒤바꾼 '대사건'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둔 후 합동참모본부는 1950년 9월 26일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했다.

귀관의 군사적 목적은 북한군을 괴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귀하는 상륙작전, 공수작전, 그리고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지상작전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그러한 작전은 소련군이나 중국군이 북한지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지역에서 우리 작전에 맞설 위협을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¹⁾

이렇듯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소련군과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으리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38선 복진을 맥아더에게 허용함으로써 한국전쟁 자체는 물론 미·소 간 세계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²⁾

이러한 점을 반영해 현재까지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 성과는 대부분 인천상륙작전의 준비과정, 전개과정, 영향, 전사적 의미 등 인천상륙작전의 공식적 진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왔다.³⁾ 그러나

1)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1950. 9. 26),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Washington, D. C.: USGPO, 1976), pp. 781-782.

2) 이에 대해서는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푸른역사, 2012), 7장;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두레, 1998), 5장 참조.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국방군사연구소, 1995); Heinl, Robert D.,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1, No. 2(Spring 1998);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호(국방군사연구소, 1999);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2000); 송인영, 「인천상륙

최근에 들어와서 인천상륙작전의 이면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⁴⁾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초기 작전 추진과정에서 참전자들의 수기 및 회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인천상륙작전의 공식 전사와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줌으로써 전쟁사 연구를 풍부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여줌으로써 ‘미군’ 중심의 인천상륙작전과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었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대별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 초기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전환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⁵⁾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인천상륙작

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2000); Bevilacqua, Allan C.,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Vol. 83, Iss. 9(September 2000); Bradford, Jeffery A.,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Vol. 81, Iss. 2(March 2001); Paschall, Rod, “Inchon,” *Military history magazine & MHQ*(ed.), *America's Great Battles, 1775-2002*(Leesburg, VA: Primedia History Group, 2002); Cagle, Malcolm W. · Manson, Frank A. 저,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Dorschner, Jim,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Vol. 22, Iss. 6(September 2005).

- 4) 이원복,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담지해낸 북한의 채일간첩」, 『국방저널』 265호(국방부, 1996. 1); 오동룡, 「켈로 부대장 최규봉 용의 ‘인천상륙작전 비사」, 『월간조선』 24권 9호(월간조선사, 2003. 9); 조화유,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클라크 대위의 수기」, 『월간조선』 26권 10호(월간조선사, 2005. 10); 이동원, 「미군의 월미도 원주민 학살사건」, 『말』 265호(월간 말, 2008. 7); 남정옥, 「인천상륙작전 앞둔 국군 17연대 부산서 20일간 극비 훈련」, 『국방저널』 441호(국방홍보원, 2010. 9); 정호영, 「첩보부대 활약으로 인천 상륙 지역 북한군 무력화: 해군 영흥도 전적지를 찾아」, 『국방저널』 442호(국방홍보원, 2010. 10); 이의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68호(새얼문화재단, 2010).
- 5) 김순규, 「인천상륙작전과 9·28수복의 의의」, 『호국』 165호(국방부, 1987. 9); 정도웅,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의 전사적 의의」, 『호국』 177호(국방부, 1988. 9); 이선호, 「인천상륙작전의 전략적 평가와 한국전쟁」, 『국방』 189호(국방부, 1989. 9); 이종학, 「인천상륙·서울탈환작전의 전사적 평가」, 『국방』 201호(국방부, 1990. 9); 양영조, 「인천상륙작전과 9·28수복작전의 전쟁사적 평가와 의의」, 『국방』 213호(국방부, 1991. 9); 김행복, 「인천상륙작전 성공이 공산군에 미친 영향」, 『국방』 225호(국방부, 1992. 9); 손문식, 「인천상륙과 서울탈환작전의 전쟁사적 의의」, 『국방』 225호(국방부, 1992. 9); 정도웅,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 『국방』 238호(국방부, 1993. 10); 양영조,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와 의의」, 『국방저널』 285호(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1997. 9); 김현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군사논단』 17호(한국군사학회, 1999. 1); 권오선,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서울수복」, 『통일로』 133호(안보문제연구원, 1999. 9); 김종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와 9·28서울수복」, 『국방저널』 309호(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1999. 9);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호(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권수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논의의 검토」, 『인천역사』 1호(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원, 2004); 이선호, 「9·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북한』 405호(북한연구소, 2005.

전이 완전한 기습작전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인천상륙작전은 이미 북한 군부에 의해 예견되었으나, 낙동강 돌파와 경인지구 사수의 선택 문제에서 북한 지도부가 낙동강 돌파를 우선했기 때문에 기습이 아닌 상륙작전이었고, 이는 북한의 전술상 실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⁶⁾ 현재까지 두 번째 주장은 공개된 사료들에 의하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사전 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⁷⁾ 어쨌든 인천상륙작전은 적의 의도를 교란하고 대규모 병력을 적 후방에 상륙시켜 후방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킨 성공한 상륙작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살펴볼 팔미도(八尾島) 정보 작전이 갖는 학술적 의미는 무엇인가? 모두(冒頭)에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인천상륙작전 연구는 주로 작전의 외양적 측면만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특수작전(Secret Operation)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일부 공개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⁸⁾ 먼저 팔미도 정보 작전은 260척에 이르는 유엔군 병력이 인천 앞바다의 좁은 비어수로(Flying Fish Channel)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중요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까지 주로 구술과 증언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⁹⁾ 그런데 문제는 팔미도

9) 박동찬, 「적 배후 강타한 '맥아더의 도박」, 『국방저널』 381호(국방홍보원, 2005. 9); 이선호, 「9·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군사논단』 43호(한국군사학회, 2005); 이선호, 「맥아더 장군과 9·15인천상륙작전」, 『군사세계』 123호(21세기군사연구소, 2005. 9);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59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 조성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29권 3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유호상, 「한반도 역사 바꾼 20세기 마지막 대상륙작전」, 『국방저널』 417호(국방홍보원, 2008. 9); 양영조,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의의」, 『항방저널』 14권 9호(항토방위연구소, 2009. 9); 권오선, 「9·28서울수복과 인천상륙작전」, 『통일로』 265호(안보문제연구원, 2010. 9); 김광수,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군사연구』 130집(육군본부, 2010. 12).

6)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10호(199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출판, 2002); 박명림, 「열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 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2004. 9. 17).

7) 이에 대해서는 이상호, 앞의 논문(2006) 참조.

8) 대표적으로 Clark, Eugene F., *The Secrets of Inchon: the untold story of the most daring covert mission of the Korean War*(N. Y.: Berkley Books, 2002); 이창건, 『KLO의 한국전비사』(지성사, 2005).

정보 작전에 대한 참가자들의 증언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증언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보면, 작전 참가자들의 인원 구성에서의 차이, 작전 개시일의 차이, 작전 성공 후 행적에서의 차이 등이 나타나 제대로 된 역사적 구성이 곤란할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팔미도 정보 작전에 대한 뒤엀킨 진실을 일부나마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작전 참가 당사자들의 증언과 공간사를 비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및 인천상륙작전사 연구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II.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먼저 팔미도와 등대의 인문 지리적 특성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보자. 팔미도는 모래톱에 의하여 연결된 두 섬이 마치 여덟팔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¹⁰⁾ 이곳에 1903년 6월, 높이 7.9m, 지름 2m의 등대가 건설되었다. 등대는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는 대리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건립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였다.¹¹⁾ 그런데 이 등대를 만든 이는 대한제국 정부의 초청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월미도, 부도 등대 등을 설계한 일본인 기사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絢彦)였다.¹²⁾

주강현의 지적처럼 대한제국 최초의 등대 건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불빛’으로 기능했던 것이다.¹³⁾ 즉, 팔미도 등대의 건설은 일본제국주의가 가진 침략주의 속성의 산물이었다. 처음에 등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청일전쟁 즈음, 군사작전의 필요상 일본 군부가 체신기사였던 이시바시로 하여금 189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9) 대표적으로 클라크, 연정, 계인주, 최규봉 등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Clark, Eugene F., *Ibid.*; 延植, 『キャノン機關からの證言』(東京: 番町書房, 1973); 계인주, 『맥아더장군과 계인주대령』(다인미디어, 1999); 오동룡, 앞의 글.

10) 주강현, 「인천등대 100년의 족적: 제국의 불빛, 식민의 여명」, 『인천역사』 4호(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7), 23쪽.

11) 위의 논문, 24쪽.

12) 위의 논문, 19쪽.

13) 주강현, 『등대: 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생각의 나무, 2007).

에 걸쳐 우리나라 전 연안의 등대 건설 위치를 조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실무를 담당한 이시바시는 1879년 11월에 고베대학(工部大學) 토목과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하여 당대 유럽 선진 각국의 등대를 견학한 뒤, 일본의 등대 건설에도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일본정부의 항로표식관리소(航路標識管理所) 소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¹⁴⁾

1901년 당시 주한일본공사는 1883년 7월 조선정부와 일본 간에 체결된 일본인민무역규칙(日本人民貿易規則) 중의 “조선정부는 후대 통상 각항을 수리하고 등대 초표(礁標)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들어 등대 건설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1902년 인천에 해관등대국(海關燈臺局)을 설치하고, 그해 5월부터 팔미도, 소월미도, 북장자 등대와 백암등표 건설에 착수하여 1903년 6월에 이를 완공했다.¹⁵⁾ 이것이 우리나라 등대 건설의 시초이기는 하지만, 일본제국의 전쟁 준비, 즉 대(對)러시아 개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었다. 현재 이 섬은 해양수산부에서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등대가 설치된 팔미도가 인천으로 접근하는 세력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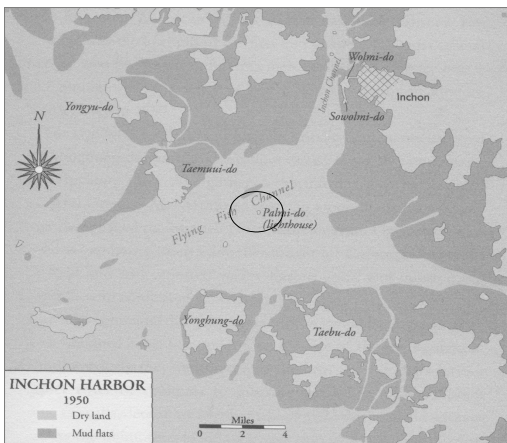


그림1-1950년 인천항구의 지도

출처: Clark, Eugene F., *The Secrets of Incheon: the untold story of the most daring covert mission of the Korean War*(N. Y.: Berkley Books, 2002), p. VIII(원 표시는 필자).

14) 주강현, 앞의 논문, 32쪽.

15) 인천광역시,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 연구실, 2005), 100쪽.

그림1을 살펴보면 팔미도의 위치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유엔군의 주력과 상륙병력이 인천해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어수로를 거쳐 인천협(Inchon Channel)을 반드시 지나야만 상륙 지점인 월미도에 다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섬과 암초로 험잡인 인천지역에서 안전한 상륙작전을 위해 팔미도 등대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이 팔미도 등대의 점령과 활용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인천상륙작전의 준비와 실행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자. 인천상륙작전은 언제부터 구상되었는가?

인천상륙작전의 최초 구상은 서울이 함락된 직후 맥아더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1950년 6월 29일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맥아더의 구상은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상륙전을 감행하여 초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¹⁶⁾ 이러한 구상은 맥아더가 일본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했던, 적의 후방을 우회하여 병참선을 공격하는 ‘섬 건너뛰기(Island Hopping)’ 작전을 한국전쟁에도 적용한 것으로 ‘블루하츠(Blue Hearts)’ 작전을 통해 구체화되었다.¹⁷⁾ 맥아더사령부는 7월 4일 육군, 해군, 공군 관계자 회의에서 작전 개시일을 7월 22일로 결정했다.¹⁸⁾ 그러나 거듭되는 전선의 악화로 인해 상륙작전 계획은 7월 8일 중단되었고, 7월 10일에 완전 무효화되었다.¹⁹⁾

16) 웨인트럽(Stanley Weintraub)에 의하면 미국은 1944년에 이미 일본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대만, 중국 연안, 조선(인천), 규슈(九州)지역에 대한 상륙을 검토했다고 한다. 1944년 6월 30일자 합동참모본부 문서 JCS 924 부속문서 B에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웨인트럽은 이러한 초기 준비와 자료가 없었다면 맥아더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n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New York: The Free Press, 2000), pp. 106-107.

17)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1), pp. 488-489. ‘섬 건너뛰기’ 작전 혹은 도약(Leapfrogging) 작전이라고 불리는 작전 개념은 상당한 군 병력을 적의 물려 있는 최전방을 피해, 후방 공격에 가담시켜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작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서태평양관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1943년 3월 태평양군사회의에서 이 작전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이 집중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섬이나 진지를 우회하여 일본군이 예상치 못한 곳에 육해군 합동상륙작전을 87번 감행해 모두 성공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호, 앞의 책, 47쪽; “Island-Hopping and Leapfrogging. U.S. Strategies,” Sandler, Stanley(ed.), *World War II in the Pacific: An Encyclopedia*(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2001), pp. 461-468 참조.

18) Appleman, Roy E. *ibid.*, p.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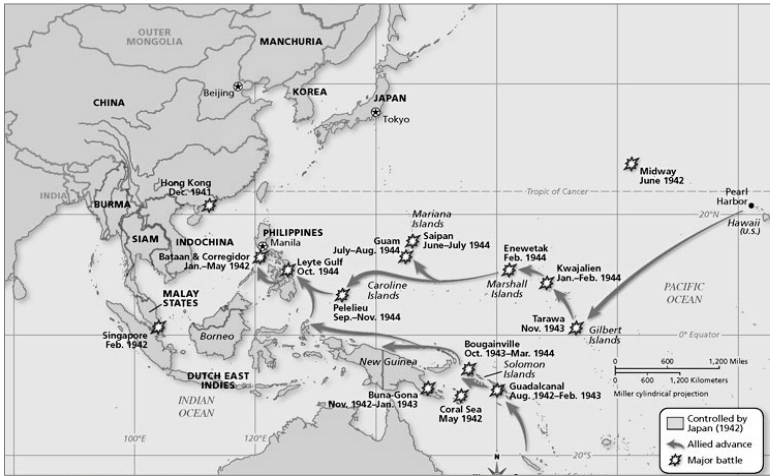


그림2-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섬 건너뛰기 작전도

출처: "Island Hopping to Japan," <http://skrikorianushistory2.weebly.com>(검색일: 2013년 3월 5일).

당시 극동군사령부 G-3 참모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 통제하에 있는 합동전략기획단(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 JSPOG)은 이에 새로운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상륙 가능한 모든 지역을 그 대상으로 했다. 작전 협의과정에서 해군은 평택의 포승면을 제시했지만, 맥아더는 인천을 고집했다.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한국의 '수도'에 인접해 있다는 상징성 외에도 경제와 교통 및 보급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²⁰⁾ 결국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인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이 7월 23일 입안되었다.²¹⁾ 여러 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1950년 8월 12일 합동전략기획단에서는 작전계획 100-B를 작성했다. 목표지역은 인천이었으며 작전 개시일(D-Day)은 9월 15일이었다.²²⁾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2-17쪽.

20) 조성훈, 앞의 논문, 140-141쪽. 특히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안을 단념시키기 위해 8월 21일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J. L. Collins)와 해군 참모총장 서먼(F. P. Sherman)이 도쿄를 방문하여 8월 23일에 최종 작전 브리핑 회의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들은 맥아더에게 설득당했다. Halberstam, David 지, 정운미·이은진 역, 『콜디스트 윈터』(살림, 2009), 452-457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5쪽. '크로마이트 작전'이라는 명칭은 이 작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크로마이트가 철광석 가운데 가장 빛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Weintraub, Stanley, *op. cit.*, p. 105.

22)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 30 September,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부대를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이 채택되자, 8월 24일 일본에 극동군주일군수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가 만들어지고, 8월 26일 상륙부대인 제10군단이 창설되었다.²³⁾

인천상륙작전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에 대한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다.²⁴⁾ 특히 일본에서는 상륙작전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관계 인사들이 간첩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6·25남침을 전후하여 주일 미군의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첩보기관인 정무원 방위국에서 정보원을 파견하여 조련 관계자 및 일본인 등을 포섭하여 작전에 들어갔다.²⁵⁾ 이들은 일본명 이와무라 요시마츠(岩村吉松)의 지령하에 움직였으며, 도쿄를 비롯하여 오사카와 홋카이도에서도 첩보망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기 1주일 전인 1950년 9월 9일 미 CIC에 의해 일본 도쿄의 세다가야(世田谷) 구에 있는 민가에서 체포되었다. 이들은 미 CIC 당국에서 오랜 심문을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기소된 자는 모두 18인으로 북한 정무원 방위국에서 밀파한 5명, 현지에서 포섭된 조련계 재일교포 11명, 일본인 2명 등이었다.²⁶⁾ 이 사건은 후에 '도쿄스파이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III. 팔미도 정보 작전(트루디 잭슨(Trudy Jackson) 작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천상륙작전은 8월 12일에 계획되었고, 약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조수가 필수적인데, 1950년 가을 인천 해안에서 상륙작전에 가능한 일지는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뿐이었다. 10월 이후는 전략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상륙작전의 의미가 낮아지기 때문에 9월 15일이 선택되었다. 특히 9월 15일은 서해안의 예상 조수 높이가 9.5m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날이었고, 인원과 장비를 상륙시키기에도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 144; Halberstam, David 저, 정윤미·이은진 역, 앞의 책, 446-447쪽.

23) Schnabel, James F., *ibid.*, pp. 136-159; Appleman, Roy E., *op. cit.*, p. 383.

24) 당시 맥아더사령부에서 상륙작전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 도쿄 기자 모임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누구나 아는 작전'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Halberstam, David 저, 정윤미·이은진 역, 앞의 책, 457쪽.

25) 이원복, 앞의 글, 106-107쪽.

26) 위의 글, 107-108쪽.

한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15일에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의 전투사적 내용과 전개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 그 이면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는 인천상륙작전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인 팔미도 정보 작전(트루디 잭슨 작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의 최근 전사에서는 팔미도 정보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1950년-필자) 8월 26일 정확한 적정과 해안정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특수요원의 침투를 구상했다. 그러나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비추어 책임자가 흔치 않았으나, 다행히 클라크(Eugene F. Clark) 대위가 있었다. [...] 그가 8월 26일 정보수집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자 서해지구 책임자인 앤드류스 소장의 주선으로 2명의 한국인 통역과 함께 영국 해군 구축함 웨리티(H.M.S. Charity)호와 한국 해군함정 PC-703함과 함께 9월 1일 저녁에 영흥도에 도착하였다. 클라크 대위는 주민들의 우호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정보 수집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해안 감시반을 조직하고 적 포대의 위치와 수, 해변의 높이 그리고 경인 간의 부대집결소와 이동 등 정보를 수집하였다.²⁷⁾

팔미도 정보 작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기는 하지만, 작전의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우선 팔미도 정보 작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팔미도 정보 작전은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 G-2에 의해 준비되고 운용되었다.²⁹⁾ 이 작전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당시 해군 대위였던 클라크(Eugene F. Clark)였다. 클라크는 수병에서 장교로 승진한 인물로 태평양전쟁에 참여했고, 중국에서의 전투에도 참가한 노련한 정보 전문가였다. 특히 그는 태평양전쟁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륙작전에 참여했다. 그는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인천항의 정찰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선발된 사람으로 8월 26일에 열린 비밀회의에도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사(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14쪽.

28) 팔미도 정보 작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 정리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9-93쪽;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編, 육군본부 전사연구실 譯, 『한국전쟁(3): 인천상륙작전』(명성출판사, 1991), 112-127쪽; Fleming, Thomas, "MacArthur's Pirate," *Military History Quarterly*, Vol. 12, No. 4(September 2000); Cagle, Malcolm W. · Manson, Frank A. 저, 신형식 역, 앞의 책, 111-113쪽.

29) 팔미도 정보 작전의 핵심 주체 부대에 대해서는 KLO, FECOM G-2, Z-Unit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참석했다.³⁰⁾ 이미 클라크는 7월부터 크로마이트 작전에 종사하고 있었다.³¹⁾ 이후 5일 동안 그는 CIA와 함께 팔미도 정보 작전으로 불린 인천 앞바다 정보작전에 대해 협의했다.

클라크는 준비를 위해 한국인 동료인 연정(延楨), 계인주(桂仁珠) 및 한국인 지원자 10명과 합류하여 출항준비를 했다. 이들은 1950년 8월 31일 영국 순양함 자메이카(Jamaica)호의 엄호를 받으면서 영국 구축함 채리티(Charity)호를 이용하여 인천으로 향했다. 클라크 첩보대³²⁾는 9월 1일 덕적도(德積島) 근해에 도착하여 한국 해군 PC-703호로 옮겨 타고, 영흥도(靈興島) 근해로 진입하여 이곳에 상륙했다.³³⁾ 당시 영흥도는 대부도(大阜島)에 인접해 있었으나, 북한군은 주로 대부도에 진주해 있었고, 영흥도에는 진주해 있지 않았다. 특히 영흥도와 대무의도(大舞衣島)의 중간지점에 팔미도가 위치해 있어, 영흥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용한 섬이었다. 이곳에서 클라크 첩보대는 청년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편성하여 경계근무를 세웠다. 영흥도를 첩보대의 근거지로 정한 후 이들은 주변지역의 정찰에 나섰다.

클라크 첩보대는 첩보 수집을 위해 청년단원들을 월미도, 인천 및 서울 시내까지 파견하여 북한군의 해안포대 수량 및 배치, 그리고 북한군의 병력 상황 등의 정보를 탐지했다. 클라크 첩보대가 매일 밤 맥아더사령부에 보고한 내용은 인천 부두의 참호, 월미도의 고사포와 기관총 진지, 소월미도의 곡사포 배치, 해안의 중포 배치 및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제원 등이었다.

9월 10일에는 배를 타고 비어수로를 거슬러 올라가 수로에 있는 유일한 표지인 팔미도 등대를 정찰했다. 팔미도에 상륙하여 무인등대를 점검한 클라크 첩보대는 등대의 사용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도표에 타전했다. 즉, 등대의 상황이 온전하다는 점과 상륙할 때 필요하다면 이를 점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맥아더사령부에서는 9월 15일 0시에 팔미도의 등대를 점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월 14일이 되자 클라크 첩보대는 명령대로 팔미도에 상륙하여 지정된 시간에 등대를 점화했고, 이를 발판으로 유엔군의 함대가 비어수로를 통해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클라크는 후에 은성

30)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編, 육군본부 전사연구실 譯, 앞의 책, 113쪽.

31) Fleming, Thomas, *op. cit.*, p. 31.

32) 여기서는 작전 책임자의 이름을 따 편의상 '클라크 첩보대'라고 명명한다.

33) Fleming, Thomas, *op. cit.*, p. 32.

메달(silver star)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팔미도 정보 작전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참가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팔미도 정보 작전에는 여러 가지 이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참가 주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팔미도 정보 작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까지 팔미도 정보 작전에 대해서는 주로 클라크 첩보대를 중심으로 클라크, 연정, 계인주 등이 주로 활약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 간행된 연정의 회고록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런데 최규봉이라는 KLO(Korea Liaison Office) 출신 인사가 이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그 주체에 대해 모호한 주장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팔미도 정보 작전의 실제적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연정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연정은 자신의 저서 『캐논기관으로부터의 증언(キャノン機関からの証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³⁴⁾ 연정은 연합군최고사령부(GHQ/SCAP) 산하 첩보 부대에서 활약했다. 이 첩보부대는 캐논기관으로서, 맥아더의 정보참모인 찰스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가 지휘하는 연합군최고사령부 G-2의 산하 기관이었다. 캐논기관은 G-2 산하 종합특수작전본부(Joint Special Operation Board, JSOB)의 직속부대로서, 정식 명칭은 ‘Z-Unit’이었다. 연정이 이 부대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1946년 김포비행장의 파견대장이었을 때, 주한미공군 첩보대 소속인 니콜스(Donald Nichols)와 함께 북한, 중국 지방의 정보수집 공작에 종사한 경험 때문이었다. 캐논기관은 정모참모 윌로비의 지시로 정보장교인 캐논(Jack Y. Canon) 소령이 이끌었던 기관으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암흑의 비밀 첩보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전후 유명한 의혹사건인 가지 와타루(鹿地亘) 사건의 배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³⁵⁾

1950년 8월 어느 날 연정은 캐논으로부터 클라크 대위와 함께 특수공작대를 편성하여 인천에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정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미 8월 15일 이전에 이러한 지시를 받았고, 8월

34) 延楨, 앞의 책.

35) Eiji, Takemae 저, 송병권 역, 『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평사리, 2011), 129-132쪽.

15일경에 영국 구축함으로 좌세보(佐世保)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의 영흥도로 향했다고 주장하지만, 클라크가 인천에 대한 작전 지시를 받은 것은 18일이므로 이는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연정에 따르면, 인천으로 가는 도중 부산에서 한국공작원을 태워 총 34명으로 클라크 첩보대를 구성했다.³⁶⁾

클라크 첩보대는 영흥도에 기지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 정찰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철수한 이후 영흥도에 잔류해 있던 대부분의 병사들(연정은 이들을 해병대로 인식)은 거의 전사했다. 결국 클라크 첩보대는 9월 13일 밤 G-2에서 보내온 작전지령에 따라 팔미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북한인민군 병사 6명이 경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제거한 후 팔미도 등대를 점등했다. 결국 이들의 성공으로 9월 15일 오전 4시 팔미도 등대를 길잡이로 한 상륙용 주정이 인천의 상륙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크로마이트 작전이라 불린 인천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연정은 이후 기함인 마운트 매킨리(Mount Mckinley)호에 탑승하고, 16일 인천에 상륙하여 맥아더를 만나 은성훈장을 직접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후 연정은 북한 영내 서해안의 여러 섬을 기지로 하여 중국의 동정을 살피는 특수작전을 전개했고, 이후 1951년 4월에는 페스트 환자 시체 탈취작전을 위해 원산에서 또 다른 첩보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팔미도 정보 작전에 참가한 계인주의 회고록을 검토해보자. 그의 저서³⁷⁾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과시가 지나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맥아더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이 본인이고, 팔미도 정보 작전의 총 지휘자도 본인이었으며, 모윤숙을 구출하기 위해 인천지역으로 침투한 최규봉을 자신의 첩보대에 끌어들이는 것도 본인의 행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활약상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는 있다.

계인주에 의하면, 자신이 이끄는 첩보대는 9월 14일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팔미도 등대에 불을 켜고, 이후 맥아더를 직접 만나 첩보활약에 대해 격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9월 17일

36) 연정의 회고 가운데에는 클라크의 회고와 상당히 다른 내용이 많다. 즉, 연정은 영국 구축함으로부터 한국 군함 PC-703함으로 옮긴 직후 클라크가 함장인 이용남 중령을 제거하지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클라크의 회고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37) 계인주, 앞의 책.

계인주는 도쿄에서 맥아더를 직접 만나, 압록강 입구 대화도에 기지를 설치해 중국에 대한 첩보활동을 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대부분이 지나친 자기 미화로 인해 설득력이 거의 없지만, 클라크와 연정의 수기를 통해 계인주의 팔미도 정보 작전 참여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팔미도 정보 작전에 관여했다는 인물은 최규봉이다. 한때는 팔미도 정보 작전이 클라크가 KLO 소속이었던 최규봉에게 지시해 그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³⁸⁾ 문제는 작전 책임자였던 클라크가 최규봉에 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규봉 본인이 팔미도 정보 작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그의 증언을 들어보자.³⁹⁾

최규봉에 따르면 맥아더사령부는 특공대를 조직해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공대는 한국인 3명과 미국인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었다. 클라크 미 해군 대위, 클락혼(Robert Kluckhohn) 미 육군 소령, 포스터(John Foster) 미 육군 중위, 계인주 육군 대령, 연정 해군 소령, 최규봉 KLO 고트 대장 등이다.

1950년 8월 10일 KLO 부대 고트 부대장이었던 28세의 최규봉은 ‘부산으로 가서 해군 정보함 백구호를 타라’는 명령을 받고 덕적도로 가던 중 클라크 해군 대위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다’는 귀뜸을 받았다. 최규봉의 작전은 8월 18일 밤부터 한 달간 계속되었는데, 9월 10일 최규봉에게 팔미도 등대를 확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후 KLO 대원 25명은 영흥도를 떠나 발동선을 타고 들어가 팔미도를 기습하여 인민군 8명 중 5명을 사살하고 등대를 확보했다.

최규봉의 증언에 의하면 팔미도 등대를 조사해보니 반사경의 전선이 끊어졌을 뿐 등대는 멀쩡했고, D-1일인 14일 오후 7시 30분, ‘15일 0시 40분을 기해 불을 켜라’는 최후명령에 따라 등대 탈환전에 나섰다. 그런데 9월 14일 23시 30분 등대를 점령했으나 대원들은 등대를 점화할 수 없었다. 그에 따르면 연결할 수 있는 나사못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사못을 찾기 위해 3시간 동안 헤맸고, 드디어 나사못이 최규봉의 손에 잡혀 등대에 점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후 철재 난간에

38) 조화유, 앞의 글.

39) 오동룡, 앞의 글.

성조기를 게양했고 등댓불과 성조기를 확인한 연합국 함대는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결국 최규봉은 9월 15일 오전 10시경 발동선을 이용해 지휘함인 마운트 매킨리호로 이동하여 월로비의 소개로 맥아더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 발간된 클라크 대위의 회고록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기로 하자. 맥아더사령부는 1950년 8월 26일 G-2에서 일하고 있던 클라크 대위(당시 39세)를 호출했고, 한국 해군 대위였던 연정(당시 30세)과 계인주(당시 42세) 대령을 차출했다. 8월 말 일본 사세보항에서 마침 한국 전선으로 가는 영국 해군 함정에 편승하여 9월 1일 오전 덕적도 근처에 도착했다. 최규봉은 8월 18일부터 클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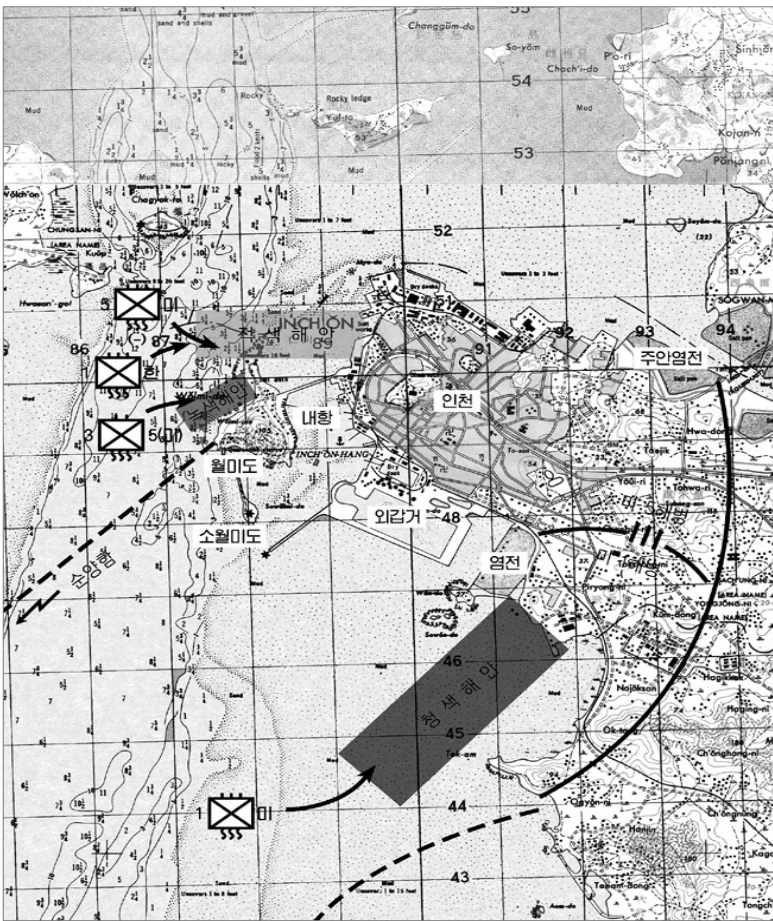


그림3-인천상륙작전 돌격계획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30쪽.

대위와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때는 클라크가 일본에서 특공작전 명령을 받기도 전이었다.

9월 3일 밤, 클라크는 연정 등 한국인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팔미도에 잠입했다. 9월 9일 밤 클라크 일행은 다시 팔미도에 상륙한 이후 맥아더사령부에 '등대 사용 가능. 점등 시각 지시 요망'이라고 무전을 발신했다. 9월 14일에 다음날 오전 0시 30분에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려는 명령을 받았고, 등대불을 켜는 것은 0시 50분이었다. 클라크의 수기에 의하면, 여기서도 작전 중에 가장 고비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나사못 소동은 없었다.

9월 15일 날이 밝아 아침이 되자 클라크는 망원경으로 맥아더 장군이 타고 있을 기함 마운트 매킨리호를 찾아냈다. 그리고 배를 이용해 연정, 계인주와 함께 매킨리호로 접근했다. 그들은 신분을 확인한 후 함께 매킨리호에 승선했다. 이후 클라크 대위는 인천상륙작전 후에도 연정과 함께 북한 서부해안 일대에서 한국 KLO 유격대원 150여 명을 지휘하여 해안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했다.

이상으로 클라크 대위의 수기를 간단히 검토해보면, 작전 성공 이후 클라크 첩보대가 맥아더를 만난 것도 사실과 매우 다른 것 같다. 계인주와 최규봉은 작전 직후 맥아더를 만나 직접 격려를 받거나 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크의 수기를 보면 클라크 대위와 연정이 팔미도 등대에 불을 켜는 사실이 상륙 당일에는 함상의 맥아더 장군이나 상륙작전 고위 지휘관들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화유는 《타임(*Time*)》지의 기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⁴⁰⁾

인천 항구 쪽에서 깜박거리는 불빛이 보였다. 그것을 보고 도일 해군 제독이 맥아더 장군에게 '적(고담계도) 향해 등까지 켜놓았군요'라고 말하자 맥아더 장군은 '(그놈들) 예의 한번 바르군'이라고 말했다(1950년 9월 25일자 《타임》지 기사에서).

40) 조화유, 앞의 글.

IV. 누구의 활약인가?

그렇다면 팔미도 정보 작전의 실체적 주체는 누구인가? 한국군인가? 미군인가? 그리고 어떤 정보기관이 이 작전을 주도한 것인가?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팔미도 정보 작전의 주체는 맥아더사령부 산하 G-2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G-2 산하 종합특수작전본부(JSOB)가 산하 기구를 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사령부 산하 G-2 기구의 조직은 그림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JSOB와 CIC(대적방첩부대) 그리고 MIS(군사첩보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합특수작전본부이다. 이 JSOB에는 8240(KLO)부대⁴¹⁾와 8177부대 그리고 Z-Unit이 포함되어 있다. 팔미도 정보 작전의 주요 주체는 클라크와 연정, 그리고 계인주 등 맥아더사령부 G-2 산하 첩보대가 중심이 되고, KLO 부대가 이에 대해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8240(KLO)부대와 Z-Unit이 주축이 되어 한국 KLO 부대의 협조를 받아 클라크 첩보대를 조직 운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한국 해군 첩보부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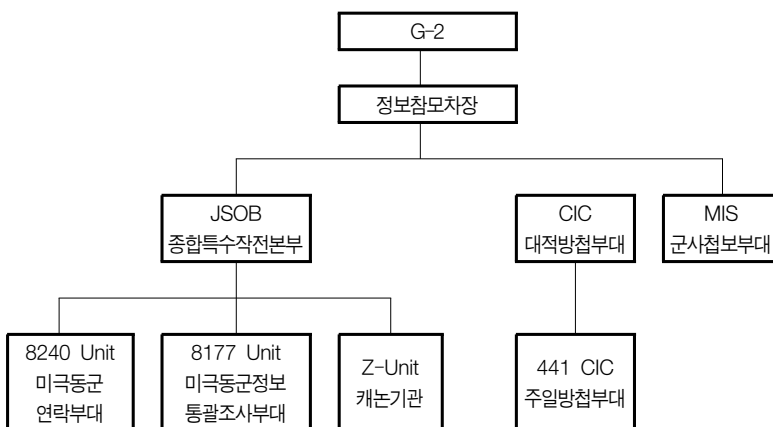


그림4-GHQ 기구 산하 G-2 기구표

출처: 延楨, 『キャノン機関からの証言』(東京: 番町書房, 1973), 71쪽.

41) 8240부대의 부대원은 1953년 6월경 2만 2,194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8240부대에 대해서는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제5·6장 참조.

영흥도에 거주했던 무명의 한국인 청년단원들의 헌신이다. 먼저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활약을 검토해보자.

한국전쟁 당시 한국 해군은 그 규모와 인원 면에서 매우 열악했지만,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소규모 작전을 감행하고 있었다. 8월 18일에는 PC-702함이 함장 이희정(李熙鼎)의 지휘로 덕적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했고, 8월 20일에는 영흥도 상륙작전을 전개했다.⁴²⁾ 이 가운데 덕적도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으나, 영흥도에서는 북한군의 저항을 받아 5명의 인명손실을 입고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이 작전의 성공에 뒤이어 해군본부의 정보감 함명수(咸明洙) 소령이 이끄는 첩보부대가 영흥도에 상륙하여 활동을 개시했다.⁴³⁾ 함명수는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의 특별 지시를 받고 8월 17일 부산에서 백구호를 타고 극비리에 부산항을 출발했다. 이후 영흥도 남단 십리포 해안에 정박하며 인천지역 북한군 배치 현황, 보급선과 현황, 해로의 기뢰매설 여부, 상륙 지점 지형, 인천항의 안벽 높이, 북한군의 방어진지 등 인천과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의 적정을 수집했다. 3개 팀으로 구성된 해군 첩보대는 영흥도를 본부로 통신, 경비, 정보 분석을 하는 1개 팀과 인천 침투를 임무로 하는 2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다. 이들 첩보대는 요원을 활용하여 직접 침투하는 위험한 첩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대원들을 위장해서 월미도 해안도로로 파견하여 해안포대의 위치와 규모, 해안 암벽의 높이 등을 측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전에 활약한 한국 해군 첩보대의 역할은 9월 1일 클라크 첩보대가 영흥도에 도착하자, 이들을 통하여 맥아더사령부에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안은 영흥도에서 팔미도 정보 작전을 위해 클라크 첩보대와 한국 해군 첩보부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청년단원들의 활약이다. 이들의 정확한 수와 인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들이야말로 팔미도 정보 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무명용사들이다.

이들의 작전으로 인해 1950년 9월 15일 시작된 인천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태평양전쟁기 상륙작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와 비교했을 때, 인천상륙작전의 피해 규모는 상당히 적은 것이었다. 이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7-88쪽.

43) 정호영, 앞의 글, 28-29쪽.

표1-태평양 지역 연합군의 주요 상륙작전과 사상자 비율

상륙작전	작전 시기	상륙병력(명)	사상자 수(명)	사상자 비율(%)
과달카날 상륙작전	1942. 8.	81,000	6,200	8
타라와 상륙작전	1943. 11.	18,000	3,300	18
사이판 상륙작전	1944. 6.	78,000	16,500	21
괌 상륙작전	1944. 7.	54,900	7,800	14
레이테 상륙작전	1944. 10.	257,800	15,600	6
이오지마 상륙작전	1945. 2.	87,000	26,000	30
오키나와 상륙작전	1945. 4.	290,000	59,400	21
인천상륙작전	1950. 9.	53,900	2,400	4

출처: Malkasian, Carter A., *Charting the Pathway to OMFTS: A Historical Assessment of Amphibious Operations From 1941 to the Present*(Alexandria, Virginia: CNA, 2007, 7), p. 12 재구성.

V. 맺음말

흔히 전쟁사에서 특수작전 및 비밀작전(Covert Action)은 그 전사적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특수작전과 비밀작전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관련 문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료의 제한성 및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특수작전의 전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⁴⁴⁾ 이는 한국전쟁 연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연구의 대부분이 전쟁 배경이나 정규군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첩보부대나 유격대 활동 등 비정규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 성과도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전쟁 참가자들의 회고록 등의 발간으로 새로운 한국전쟁사 연구의 시계(視界)가 넓혀지고 있다. 팔미도 정보 작전의 경우에도 자료적 제한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내용이 클라크 회고록 등의 발간으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첩보작전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하기에는 자료 확보가 미흡하

44)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첩보부대 및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조성훈, 앞의 책;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국가 정보기관의 형성과 활동』, 『제노사이드연구』 2호(2007); 박성진·이상호,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의 탄생과 이승만』, 『아세아연구』 148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참조.

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회고 및 기억이 굴절·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적은 이 글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기억의 현재 지향성에 따라 기억은 역사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기억은 시점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 그것들은 동일한 과거에 대해 일관된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이한 복수의 기억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현재 지향적이고 현재의 토양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기억이라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기억은 걸러져서 어떤 것은 계속 존속하고 어떤 것은 억압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따라서 기억은 망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망각은 기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팔미도 정보 작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료교차방법을 통한 검증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작전 참여자들의 회고록 및 증언을 교차 분석하여, 팔미도 정보 작전의 의미를 재검토해보았다. 물론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이 글을 통해 주목할 점은, 플래밍(Thomas Flemming)이 지적했듯이 팔미도 정보 작전을 비롯해 인천상륙 작전을 위한 예비 작전에서 한국인 자원자들의 희생과 클라크 첩보대의 과감한 첩보작전이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동원된 약 5만 3,900명의 상륙병력 가운데 상륙작전으로 2,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동원된 연합군 약 75만 명 가운데 약 21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에 비하면 인천상륙작전은 엄청난 성공이었다.⁴⁶⁾ 이러한 성공에는 이름 모를 한국인 청년단의 활약과 G-2, Z-Unit 및 KLO 부대의 협력작전이 가미된 팔미도 정보 작전이 있었던 것이다.

45)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집(역사학회, 2007. 3), 281-282쪽.

46) Malkasian, Carter A., *Charting the Pathway to OMFTS: A Historical Assessment of Amphibious Operations From 1941 to the Present*(Alexandria, Virginia: CNA, 2007. 7), p. 12.

참 고 문 헌

- 전수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논의의 검토」. 『인천역사』 1호, 인천광역시 역사 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4.
- 계인주, 『맥아더장군과 계인주대령』. 다인미디어, 199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사(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 권오선,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서울수복」. 『통일로』 133호, 안보문제연구원, 1999. 9.
- _____, 「9·28서울수복과 인천상륙작전」. 『통일로』 265호, 안보문제연구원, 2010. 9.
-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 _____,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군사연구』 130집, 육군본부, 2010. 12.
- 김순규, 「인천상륙작전과 9·28수복의 의의」. 『호국』 165호, 국방부, 1987. 9.
-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98.
- 김중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와 9·28서울수복」. 『국방저널』 309호,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1999. 9.
-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국가 정보기관의 형성과 활동」. 『제노사이드연구』 2호, 2007.
- 김행복, 「인천상륙작전 성공이 공산군에 미친 영향」. 『국방』 225호, 국방부, 1992. 9.
- 김현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군사논단』 17호, 한국군사학회, 1999. 1.
- 남정옥, 「인천상륙작전 앞둔 국군 17연대 부산선 20일간 극비 훈련」. 『국방저널』 441호, 국방홍보원, 2010. 9.
- 박동찬, 「적 배후 강타한 ‘맥아더의 도박」. 『국방저널』 381호, 국방홍보원, 2005. 9.
- 박명립,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10호, 1997.
- _____,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 _____, 「열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 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 2004. 9. 17.
- 박성진·이상호,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의 탄생과 이승만」. 『아세아연구』 148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 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 손문식, 「인천상륙과 서울탈환작전의 전쟁사적 의의」. 『국방』 225호, 국방부, 1992. 9.
-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 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집, 역사학회, 2007. 3.
- 양영조, 「인천상륙작전과 9·28수복작전의 전쟁사적 평가와 의의」. 『국방』 213호, 국방부, 1991. 9.
- _____,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와 의의」. 『국방저널』 285호,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1997. 9.
- _____,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의의」. 『항방저널』 14권 9호, 항토방위연구소, 2009. 9.
- 오동룡, 「켈로 부대장 최규봉 용의 ‘인천상륙작전 비사」. 『월간조선』 24권 9호, 월간조선사, 2003. 9.
- 유호상, 「한반도 역사 바꾼 20세기 마지막 대상륙작전」. 『국방저널』 417호, 국방홍보원, 2008. 9.
- 이동원, 「미군의 월미도 원주민 학살사건」. 『말』 265호, 월간 말, 2008.7.
- 이상호, 「미국의 테평양안보정책과 한국전쟁」. 『미국사연구』 9집, 한국미국사학회, 1999. 6.
- _____, 「한국전쟁기 38선 북진과 냉전의 고착화」. 『정신문화연구』 28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2.
- _____,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6.
- _____, 「맥아더의 한국전쟁 군사전략」.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 _____,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 이선호, 「인천상륙작전의 전략적 평가와 한국전쟁」. 『국방』 189호, 국방부, 1989. 9.
- _____, 「9·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북한』 405호, 북한연구소, 2005. 9.
- _____, 「맥아더 장군과 9·15인천상륙작전」. 『군사세계』 123호,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9.
- 이원복,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탐지해 낸 북한의 재일간첩」. 『국방저널』 265호, 국방부, 1996. 1.
- 이의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이품」. 『황해문화』 68호, 새얼문화재단, 2010.

이종학, 「인천상륙·서울탈환작전의 전사적 평가」. 『국방』 201호, 국방부, 1990. 9.

이창건, 『KLO의 한국전비사』. 지성사, 2005.

인천광역시,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정도웅,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의 전사적 의의」. 『호국』 177호, 국방부, 1988. 9.

_____,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 『국방』 238호, 국방부, 1993. 10.

_____, 「첩보부대 활약으로 인천상륙 지역 북한군 무력화: 해군 영흥도 전적지를 찾아」. 『국방저널』 442호, 국방홍보원, 2010. 10.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_____,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29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조화유,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클라크 대위의 수기」. 『월간조선』 26권 10호, 월간조선사, 2005. 10.

주강현, 『등대: 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 생각의 나무, 2007.

_____, 「인천등대 100년의 족적: 제국의 불빛, 식민의 여명」. 『인천역사』 4호,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7.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編, 육군본부 전사연구실 譯, 『한국전쟁(3): 인천상륙작전』. 명성출판사, 1991.

延楨, 『キャノン機關からの証言』. 東京: 番町書房, 1973.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1.

Bevilacqua, Allan C.,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Vol. 83, Iss. 9, September 2000.

Bradford, Jeffery A.,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Vol. 81, Iss. 2, March 2001.

Cagle, Malcolm W. · Manson, Frank A. 저,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Clark, Eugene F., *The Secrets of Inchon: the untold story of the most daring covert mission of the Korean War*. N. Y.: Berkley Books, 2002.

Dorschner, Jim,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Vol. 22, Iss. 6, September 2005.

Eiji, Takemae 저, 송병권 역, 『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평사리, 2011.

Fleming, Thomas, "MacArthur's Pirate." *Military History Quarterly*, Vol. 12, No. 4, September 2000.

- Halberstam, David 저, 정윤미 · 이은진 역, 『콜디스트 윈터』. 살림, 2009.
- Heinl, Robert D.,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1, No. 2, Spring 1998.
- Malkasian, Carter A., *Charting the Pathway to OMFTS: A Historical Assessment of Amphibious Operations From 1941 to the Present*. Alexandria, Virginia: CNA, 2007. 7.
- Paschall, Rod, "Inchon," Military history magazine & MHQ(ed.), *America's Great Battles, 1775-2002*. Leesburg, VA: Primedia History Group, 2002.
- Sandler, Stanley(ed.), *World War II in the Pacific: An Encyclopedia*.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2001.
-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Washington, D. C.: USGPO, 1976.
-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n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The Free Press, 2000.

국 문 요 약

1950년 6월 북한의 전격적 남침으로 개진된 이래, 낙동강 전선에서 수세에 몰렸던 한국전쟁의 전세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해 일거에 반전을 이루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38선 돌파를 통해 북한으로의 진격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한국전쟁의 전략적 변화는 물론 미·소 간 세계전략의 차원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간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준비과정, 전개과정, 영향, 전사적 의미 등 인천상륙작전의 공식적 진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천상륙작전의 이면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초기 작전 추진과정에서 참전자들의 수기 및 회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인천상륙작전의 공식 전사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줌으로써 전장사 연구를 풍부하게 해주었으며, 한국인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여줌으로써 '미군' 중심의 인천상륙작전과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팔미도 정보 작전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 260척에 이르는 유엔군 병력이 인천 앞바다의 좁은 '비어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중요한 작전이었지만, 그간 학계에서는 자료의 부족과 한계로 인해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팔미도 정보 작전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회고록 및 증언을 교차 분석하여, 팔미도 정보 작전의 의미를 재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팔미도 정보 작전에는 한국인 자원자들의 희생과 클라크 첩보대의 과감한 첩보작전이 크게 기여했음을 밝혀냈다. 인천상륙작전은 약 5만 3,900명의 상륙병력 가운데 피해자가 불과 2,4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전사에서도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둔 작전이다. 만약 이름 모를 한국인 청년단의 활약과 G-2, Z-Unit 및 KLO 부대의 협력작전이 가미된 팔미도 정보 작전이 없었다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투고일 2013. 6. 20.

심사일 2013. 7. 29.

게재 확정일 2013. 8. 5.

주제어(keyword) 한국전쟁(Korean War), 인천상륙작전(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섬 건너뛰기'(Island Hopping), 팔미도 정보 작전(Palmido Intelligence Operation), 특수작전(Secret Operation), 기억(memory)

